

조선시대 外交儀禮의 특징*

김 문 식**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시대의 外交儀禮를 통해 동아시아 삼국의 국가적 위상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문에서는 동아시아 삼국이 외교문서를 교환하는 절차와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에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외교의례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발견했다.

중국 황제와 조선 국왕은 철저하게 君臣 관계에 있었다. 조선 국왕은 황제에게 외교문서를 보낼 때나 황제의 외교문서를 받을 때 반드시 군신의 예를 거행하였다.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에서도 군신 관계가 잘 나타났다. 예부상서가 조선 사신을 접대할 때에는 두 사람이 군신 관계에 있었고, 조선 국왕이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에는 대등한 항례를 했다.

중국에서 조선 사신의 지위는 명대보다 청대에 더 격하되었다. 조선 사신을 위한 연회는 장소가 숙소에서 禮部로 바뀌었고, 황제에게 더 어려운 예를 거행한 후 더 적은 술잔을 받았다. 황제가 주는 선물을 받을 때에도 사신은 황제의 궁궐이 아니라 궁궐 입구에서 받았다.

조선 국왕과 일본 關伯은 대등한 항례를 했다. 국왕과 관백은 사신을 파견하여 國書를 전달하였고, 이 때 사신은 국왕과 관백에게 군신의 예를 거행하였다. 조선과 일본의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도 대등했다. 일본에서 조선 사신은 대마도주, 막부의 관리들과 항례를 했고, 일본 사신이 조선에서 대접받은 의례도 이와 비슷했다.

조선에서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는 전기와 후기가 달랐다. 조선후기에는 대마도주가 사신을 파견했으며, 이 사신은 동래부사를 만나고 국왕을 만나지는 못했다. 조선전기에는 예조판서와 일본 사신이 항례를 했지만, 조선후기에는 동래부사와 일본 사신이 항례를 했다.

1864년 일본의 天皇이 복권되면서 동아시아 삼국의 국가적 위상에 큰 변화가 생겼다. 조선에서 일본의 천황과 대등한 항례를 한 것은 大韓帝國의 황제가 등장한 이후였다.

[주제어] 외교의례, 외교문서, 국왕, 황제, 關伯

목 차

- | | |
|------------------|-----------------------|
| I. 머리말 | Ⅲ. 使臣의 接待 儀禮에 나타나는 특징 |
| Ⅱ. 外交文書에 나타나는 특징 | Ⅳ. 맺음말 |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 사학과 교수 / kmsik@dankook.ac.kr

I. 머리말

조선시대의 국제관계는 중국과는 事大 관계, 일본과는 交隣 관계를 맺었다.¹⁾ 조선은 중국의 황제에게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朝貢이라 불리는 方物을 보냈고, 중국의 황제는 이에 대응하여 回賜라 불리는 답례품을 주었다. 조선에서 새 국왕이 결정되면 황제는 그를 국왕으로 책봉하면서 국왕의 임명장이라 할 誥命과 국왕이 사용할 印信을 주었다.²⁾ 조선의 국왕은 황제에게 보내는 외교문서에서 자신을 ‘臣’이라 불렀다. 한편 조선은 일본에 대해 조공을 보내거나 국왕의 책봉을 받는 절차가 없었다. 조선의 국왕과 일본의 국왕으로 간주되는 關伯(將軍)은 서로 사신을 파견하여 國書를 교환하면서 우호 관계를 지속할 뿐이었다. 조선 국왕은 관백에게 보낸 외교문서에서 朝鮮國王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했고 상대방을 ‘日本國大君’이라 불렀다. 조선의 국왕과 일본의 관백은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³⁾

필자는 조선시대의 外交儀禮를 살펴보면 조선이 주변국들과 가졌던 事大·交隣 관계의 실상과 동아시아 三國의 국가적 위상이 잘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조선을 기준으로 하여 조선과 중국, 조선과 일본이 외교문서를 발급하고 접수하는 과정이나 자국을 방문한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를 비교해 보면 삼국 사이에 존재하는 국가적 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고는 조선시대의 외교의례를 통해 韓·中·日 삼국의 국가적 위상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外交文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외교문서를 발급하고 접수하는 주체와 외교문서를 전달하는 의례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중·일에서 조선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와 조선에서 중·일의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본고의 자료로는 주로 『國朝五禮儀』를 비롯한 國家典禮書와 『通文館志』 『同文彙考』 등을 활용하였고, 年代記 자료와 외국을 방문한 使臣이 남긴 여행기를 보완적으로 검토하였다.

II. 外交文書에 나타나는 특징

1. 외교문서의 발급자와 접수자

조선에서 중국으로 보낸 외교문서에는 表文, 箋文, 狀文, 奏文, 咨文, 啓文, 申聞, 呈文, 單子 등이 있었다.

1) 동아시아 국가의 朝貢·冊封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성과를 참조.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1970, 26~112쪽.

김한규, 「전통시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질서」, 『역사비평』 2000년 봄호, 2000, 282~298쪽.

2) 필자는 청 황제가 英祖를 조선의 王世子와 國王으로 책봉하는 절차를 검토한 바 있다(「英祖의 國王冊封에 나타나는 韓中 관계」, 『韓國實學研究』 23, 2012).

3) 조선과 일본의 외교의례에 대해서는 하우봉, 「조선시대의 통신사외교와 의례문제」, 『朝鮮時代史學報』 58, 2011을 참조.

이와 별도로 조선 사신이 현지에서 이동하면서 작성한 문서가 있었다. 조선 사신이 파견된다는 사실을 명대의 遼東都司나 청대의 盛京에 알리는 先文, 압록강을 건널 때 요동도사의 관원에게 알리는 渡江狀, 柵門을 들어설 때 제출하는 入柵報單, 중국 內地를 이동할 때 필요한 票文을 발급받으려 제출하는 咨文이 이에 해당하였다.⁴⁾

모든 외교문서에는 발급자와 접수자가 있었다. 19세기 전반에 정약용은 조선에서 청으로 보내는 외교문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외교문서의 접수자를 중심으로 한 발언이었다.

항상(皇上)에게 올리는 것을 ‘표(表)’라 하고 섭정왕(攝政王)에게 올려도 ‘표(表)’라 한다, 황태자(皇太子)에게 올리는 것을 ‘진(箋)’이라 하며, 황후(皇后)에게 올리는 것을 ‘장(狀)’[방물장(方物狀)]만 있다 이라 한다. 일이 있어 황상에게 알리는 것을 ‘주(奏)’라 하고, 일이 있어 예부(禮部)에 보고하여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을 ‘자(咨)’라 한다. 진주(陳奏)할 때에 황태자에게 올리는 것을 ‘계(啓)’라 하고, 황후에게 올리는 것을 ‘단(單)’[방물단(方物單)]만 있다 이라 한다. 대상(大喪)이 있을 때 정부의 대신이 예부에 보고하는 것을 ‘신문(申文)’이라 하고, 사신(使臣)이 일이 있어 예부에 알리는 것을 ‘정문(呈文)’이라 한다. 그 문체가 각각 다르다.⁵⁾

조선에서 중국으로 보낸 외교문서의 발급자와 접수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表文: 朝鮮 國王 → 中國 皇帝
 箋文: 조선 국왕 → 중국 皇太子, 皇后
 狀文: 조선 국왕 → 중국 황후
 奏文: 조선 국왕 → 중국 황제
 咨文: 조선 국왕 → 중국 禮部(會同館 提督 → 禮部 → 儀制司)
 啓文: 조선 국왕 → 중국 황태자
 申文: 조선 議政
 呈文: 조선 使臣 → 해당 衙門
 單子: 조선 국왕 → 중국 황후

이를 보면 조선에서 보낸 외교문서의 발급자는 國王, 議政, 使臣이 있고, 접수자는 皇帝, 皇后, 皇太子, 衙門이 있었다. 다만 황태자에게 보내는 문서의 경우 淸 康熙帝 이후로는 儲位祕建法이 시행되어 황태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실제로 발급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조선에서 새 국왕이 즉위하면 王大

4) 김경록, 「朝鮮初期 對明外交와 外交節次」, 『韓國史論』 4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0, 35쪽.

5) 『事大考例』 권24, 「表咨考」 1.

“進於皇上曰‘表’[進於攝政王, 亦稱‘表’], 進於皇太子曰‘箋’, 進於皇后曰‘狀’[只有方物狀]. 有事而陳於皇上曰‘奏’, 有事而報於禮部, 冀其轉達曰‘咨’. 其陳奏之時, 進於皇太子曰‘啓’, 進於皇后曰‘單’[只有方物單]. 大喪之時, 政府大臣, 報於禮部曰‘申文’. 使臣有事, 陳於禮部曰‘呈文’. 其體各殊.”

6) 김경록, 「조선시대 事大文書의 생산과 전달체계」, 『韓國史研究』 134, 2006, 41~42쪽.

妃가 발급자가 되어 새 국왕과 왕비의 책봉을 요청하는 외교문서를 보냈다. 가령 1724년 10월에 대왕대비로 있던 仁元王后는 청 황제에게 영조를 국왕으로 책봉하고 그 부인인 徐氏를 왕비로 책봉해 줄 것을 요청하는 奏文을 보냈다.

첩(妾)이 이때 부인(婦人)으로 피험(避嫌)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삼가 전례(典禮)를 따라 주문(奏文)을 갖추어 세제(世弟) 이금(李吟)을 책봉하여 국왕을 승습(承襲)하게 하고 처 서씨(徐氏)를 왕비로 책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⁷⁾

조선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외교문서는 使臣의 임무에 따라 종류가 다양했다.⁸⁾ 조선에서 파견한 사신에는 ‘節行’과 ‘別行’이 있었다. 먼저 節行은 元旦, 冬至, 聖節, 千秋와 같은 節日에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사절로 처음에는 正朝使, 冬至使, 聖節使, 千秋使 등이 있었다. 이 중 친추사는 崇德 연간(1636~1643)에 폐지되고 그 대신 歲幣使를 두었고,⁹⁾ 1645년(인조 23)에는 청 황제의 명령으로 元朝使, 冬至使, 聖節使와 歲幣使를 합하여 ‘冬至使’라 했다. 동지사(東使)는 반드시 正使, 副使, 書狀官 3員을 갖추었고 일 년에 한 번씩 파견했다.¹⁰⁾ 다음으로 別行은 일이 있을 때마다 파견하는 사절로 謝恩使, 奏請使, 進賀使, 陳慰使, 傳香使가 있었고, 辨誣使와 問安使가 추가되었다.¹¹⁾

다음의 <표 1>은 조선 사신들이 가져가는 외교문서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조선 사신의 외교문서

(단위: 通)¹²⁾

문서 \ 사신		冬至 正朝	聖節	謝恩 陳賀	奏請 陳奏	陳慰	告訃	問安
表文	御前	2 ¹³⁾	2	2	2	2	2	2
	方物	2	2	2				2
箋文	皇太子前	2		2		2	2	
	方物	2		2				

7) 『同文彙考 原篇』 권2, 封典2, 甲辰(1724), 「請世弟嗣位奏 互陳奏」(1724. 10. 6).

“妾於斯時，有不可以婦人嫌避者，謹遵典禮，具奏欽請冊世弟諱，承襲國王，妻徐氏爲王妃。伏惟皇上，天地父母，特令該部，誕降詔命，使小邦臣民，獲觀寵光，不勝幸甚。”

8) 1780년 乾隆帝의 칠순을 축하하는 陳賀謝恩使가 주고받은 외교문서에 대해서는 구범진, 「조선의 건륭 칠순 진하특사와 『열하일기』」, 『인문논총』 70,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9~17쪽 참조.

9) 1632년(인조 10)에는 冬至兼聖節千秋使가 파견되었다(『仁祖實錄』 권26, 仁祖 10년 6월 乙酉(19일)).

10) 『大清會典』 권39, 禮部, 「主客清吏司」.

“凡入貢，各定期期。[朝鮮每年四貢，於歲初，合進.]”

11) 『通文館志』 권3, 事大上, 「赴京使行」.

陳慰使는 관례상 進香使를 겸하였다. 正使는 陳慰使가 되고 副使는 進香使가 되었다. 問安使는 중국 황제가 巡幸을 하다가 우리나라와 가까운 국경에 이르면 보내는 사절을 말한다.

12) 『通文館志』 권3, 事大上, 「文書寶去總數」.

13) 正本 1통과 副本 1통을 합한 것이다.

문서 \ 사신		冬至 正朝	聖節	謝恩 陳賀	奏請 陳奏	陳慰	告訃	問安
狀文	皇太后前	1	1	1				
奏本	年貢		1					
	方物				1			
咨文	禮部	3 ¹⁴⁾	3	3	4	2	2	1
單本	皇太后前				1			
啓本	皇太子前				1			
祭文	進香					1		
摠單	禮物		1	1	1			1

한편 중국에서 조선으로 보내는 외교문서는 발급 주체에 따라 皇帝文書와 官府文書로 구분되었다. 황제가 보내는 황제문서에는 詔, 誥, 制, 勅, 冊文, 諭, 書, 符, 令, 檄 등이 있었고, 주로 翰林學士가 작성했다. 여기에서 符, 令, 檄은 황제의 명의를 위임받는 관청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황제가 발급한 문서는 아니었다. 조선에서 받은 황제문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왕을 책봉하는 誥命이었고, 황제가 조선 국왕을 책봉할 때 내리는 문서에는 冊封詔와 頒誥命彩幣勅이 있었다.¹⁵⁾ 이와 별도로 중국 관청에서 발급하는 관부문서에는 奏本, 啓本, 照會 등이 있었다.

중국에서 조선으로 보낸 외교문서의 발급자와 접수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⁶⁾

詔 : 중국 황제 → 조선 국왕, 천하에 포고하는 것

誥 : 중국 황제 → 조선 국왕, 5품 이상 관리에 대한 封典

制 : 중국 황제 → 조선 국왕, 조정 백관에게 宣示하는 것

勅 : 중국 황제 → 조선 국왕, 6품 이하 관리에 대한 封典, 특정 사안을 특정 지역에 내림

冊文 : 중국 황제 → 조선 국왕

諭 : 중국 황제 → 조선 국왕

書 : 중국 황제 → 조선 국왕

旨 : 중국 황제 → 조선 국왕

14) 御前 表文과 方物表文에 대한 禮部咨文 1통, 皇太后前 狀文에 대한 예부자문 1통, 皇太子前 箋文과 方物箋文에 대한 예부자문 1통을 합하여 3통이다. 이때의 예부자문은 해당 문서를 황제, 황태후, 황태자에게 전해달라고 예부에 요청하는 進呈함에 해당한다.

15) 『大清會典』 권39, 禮部, 「主客清吏司」.

“○ 凡封外國, 必錫之詔勅朝鮮奏請襲封, 勅下部議, 應封世子或世弟世孫某爲國王. 妻某氏爲王妃, 題請頒詔勅各一道. 遣使持節往封. 初內附, 則錫之印崇德二年, 朝鮮國王李倧內附, 賜龜鈕金印.”

여기서 “題請頒詔勅各一道”는 冊封詔 1道와 頒誥命彩幣勅 1道を 의미한다.

16) 金暉綠, 「朝鮮後期 事大文書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5, 2005, 185~188쪽; 金暉綠, 「明代 公文制度和 行移體系」, 『明清史研究』 26, 2006, 126~131쪽.

奏本 : 해당 아문

啓本 : 해당 아문

照會 : 해당 아문

이를 보면 중국에서 보낸 외교문서의 발급자는 皇帝와 衙門이고, 접수자는 대부분 조선의 국왕이었다.

다음으로 조선과 일본은 대등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외교문서의 위상도 대등했다. 조선과 일본이 교환한 외교문서에는 國書와 書契가 있었다. 조선후기의 국왕은 일본의 실제 통치자인 關伯에게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3차례에 걸쳐 國書를 보냈고,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국서를 받았다.¹⁷⁾ 書契는 조선의 禮曹參判과 막부의 老中, 禮曹參議와 대마도주, 釜山鎮 僉使와 대마도주 사이에 주고받은 외교문서이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對馬島宗家文書’를 보면,¹⁸⁾ 1614년부터 1872년까지 조선에서 대마도로 보낸 각종 서계의 원본이 9,442점이나 남아있다.¹⁹⁾ 서계는 양국이 서로 주고받는 문서였으므로 대마도에서 조선 예조에 보낸 서계까지 고려한다면 총 2만점에 가까운 분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⁰⁾

조선과 일본이 교환하는 외교문서는 발급자와 접수자의 위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다음의 <표 2>는 조선과 일본의 외교 상대와 호칭, 교환한 외교문서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조선과 일본의 외교 상대와 외교문서²¹⁾

조선	일본	호칭	외교문서
國王	關伯	殿下	國書
禮曹參判	老中(執政)	閣下	書契
禮曹參議	對馬島主(對馬太守)	足下 → 閣下	
禮曹佐郎	萬松院	足下	
	以酏庵	足下	
	兒名圖書使	閣下	
	長老	足下	

한편 동래부와 倭館 사이에는 국서나 서계와 같이 공식문서는 아니지만 실무문서로 주고받은 傳令이나 覺이 있었다. 이는 실무자끼리 교환하는 실무문서에 불과하지만 조선 정부에서 내린 결정이나 지침을 왜관에

17) 조선과 일본이 교환한 國書는 『同文彙考』에 수록되어 있다.

18) 對馬島宗家文書는 1926년(大正 15)과 1938년 두 차례에 걸쳐 朝鮮史編修會가 대마도 종가에서 구입한 자료이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記錄類 6,592점, 繪圖類 1,485점, 古文書類 11,200점, 書契 9,442점, 印章 22점을 합하여 총 28,741점이 있다(泉澄一, 「對馬島宗家文書의 分析 연구」, 『국사관논총』 7, 1989).

19)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9,442점의 書契 가운데 原本은 9,325점, 寫本은 117점이며, 1685년의 書契는 산일되었다.

20) 孫承喆, 『近世朝鮮의 韓日關係研究』, 국학자료원, 1999, 134쪽.

21) 김문식, 『조선 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174쪽;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景仁文化社, 2011, 8쪽.

전달하여 외교적 사안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넓은 의미의 외교문서라 할 수 있다.

조선과 일본이 교환한 외교문서의 발신자와 접수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²⁾

國書 : 조선 國王 ⇄ 일본 關伯
 書契 : 조선 禮曹參判 ⇄ 일본 老中
 조선 禮曹參議 ⇄ 對馬島主
 조선 釜山鎮 僉使 ⇄ 대마도주
 傳令 : 東來府使, 接慰官 → 倭館 館守
 覺 : 동래부사 ← 왜관
 東來府 譯官 ⇄ 倭館 館守, 裁判, 代官

다음의 <표 3>은 동아시아 삼국이 교환한 외교문서를 조선을 중심에 두고 정리한 것이다.

<표 3> 조선시대 동아시아 삼국의 외교문서

중국	외교문서	조선	외교문서	일본
皇帝	表文, 奏文(←) 詔, 誥, 制, 勅, 冊文, 諭, 書, 旨(→)	國王	國書(⇄)	關伯(將軍)
皇太子	箋文, 啓文(←)	국왕		
皇后	箋文, 狀文(←)	국왕		
禮部	咨文(←)	국왕		
	申文(←)	議政		
衙門	呈文(←) 奏本, 啓本, 照會(→)	使臣		
		禮曹參判	書契(⇄)	老中
		禮曹參議	書契(⇄)	對馬島主
		接慰官 東萊府使	傳令(→) 覺(←)	倭館
		釜山僉使	書契(⇄)	대마도주
		東萊 譯官	覺(⇄)	왜관

<표 3>을 보면 조선과 중국이 교환한 외교문서는 종류가 다양했지만 조선과 일본이 교환한 외교문서는 매우 제한되었다.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했고 황실 가족에게 吉事

22)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景仁文化社, 2011, 150~239쪽.

나 凶事가 있을 때에도 사신을 파견했다. 그러나 일본으로는 關伯의 경사나 교제,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사신을 파견했으므로 외교문서의 종류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과 일본이 교환한 외교문서에서 국왕문서는 國書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실무 관리들 사이에 교환하는 문서였다.

조선 국왕은 중국의 禮部와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문서를 보냈고, 중국의 황제와 황후, 황태자에게는 君臣 관계로 외교문서를 올렸다. 이에 비해 조선 국왕은 일본의 關伯과 대등한 지위에 있었고, 일본의 老中은 조선의 예조참판, 대마도주는 예조참의와 부산첨사, 왜관의 館守는 동래부사 및 동래부 소속의 역관과 문서를 교환할 수 있었다. 일본의 老中이 예조판서가 아닌 예조참판과 문서를 교환한 것은 조선 관리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조선과 일본의 외교문서는 국왕과 관백의 國書를 제외하면 모두가 실무 문서였다. 이를 보면 조선과 중국의 관계가 의례적으로 정형화된 관계라면 조선과 일본은 실무적인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명·청 교체기를 전후하여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國書와 書契는 연호의 표기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조선의 국서에서는 1643년까지 명의 연호인 崇禎을 사용했지만 1645년 정월 이후로는 干支만 사용했다. 1644년 청이 북경을 장악한 상황에서 조선이 명의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했고 그렇다고 청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도 곤란했기 때문이다. 1645년 3월에 조선 정부에서는 당분간 간지를 사용하다가 일본 측에서 청이 중원을 장악한 사실을 알게 되면 청의 연호를 사용하자고 결정했다.²³⁾ 그러나 실제로 조선에서 보낸 국서와 서계는 1645년부터 1872년까지 간지만 사용하고 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²⁴⁾

2. 외교문서를 전달하는 의례

조선의 외교문서를 중국으로 보낼 때에는 출발할 때부터 특별한 의례가 있었다. 조선 국왕이 중국 황제에게 表文이나 箋文을 보내면서 君臣 의례를 거행했기 때문이다.²⁵⁾ 이 때 국왕은 식장의 서쪽으로 이동하여 계단 위 중앙에 있는 拜位에서 表文이나 箋文을 향해 절을 하였고, 표문이나 전문은 식장의 中門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또한 표문은 黃儀仗이 배치된 가운데 黃屋龍亭에 실려 이동하였고, 전문은 紅儀仗이 배치된 가운데 靑屋龍亭에 실려 이동하였다.²⁶⁾ 국왕이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이나 전문은 황제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조선 사신이 북경에 도착하면 그 다음날 禮部로 가서 외교문서를 제출했다.²⁷⁾ 외교문서를 제출할 때 조선 사신은 公服을 갖추었다. 조선 사신이 외교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은 명대와 청대에 차이가 있었다. 명대에는 조선 사신이 禮部尙書를 만나 무릎을 꿇고 咨文을 올렸고, 通事는 儀制司로 가서 表文을 전달했다. 청대에는 조선 사신이 예부상서나 禮部侍郎을 만나 표문과 자문을 한꺼번에 전달했다. 이때에도 조선 사신은 무릎을

23) 『仁祖實錄』 권46, 仁祖 23년 3월 壬辰(9일).

24)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景仁文化社, 2011, 54~55쪽.

25) 『世宗實錄·五禮』 권132, 嘉禮儀式, 「拜表儀」; 『國朝五禮儀』 권3, 嘉禮, 「拜表儀」; 『春官通考』 권46, 嘉禮, 「拜表儀」.

26) 『春官通考』 권46, 嘉禮, 「拜表儀」[拜箋附. 如千秋節別行拜箋, 則設宮庭, 陳紅儀仗如儀.].

27) 1712년 11월에 서울을 떠나 이듬해 3월에 귀국한 金昌業은 『燕行日記』 권1의 첫 부분에서 表咨文呈納, 鴻臚寺演儀, 朝參儀를 정리했다. 이는 북경에 도착한 조선 사신에게 이 세 가지 의례가 중요한 절차였음을 의미한다.

꿨고 표문과 자문을 올렸다. 외교문서를 전달할 때 중국의 예부상서나 예부시랑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섰고, 조선 사신이 올리는 표문이나 자문을 받은 사람은 禮部郎中이었다. 이때 조선 사신은 예부상서에게 君臣의 예를 했고, 예부낭중에게는 抗禮를 하였다.²⁸⁾

예부에 제출한 외교문서는 조선 사신이 황제의 조회에 참석했을 때 황제에게 전달되었다. 조선 사신이 황제의 조회에 참석하는 의례는 명대와 청대가 달랐다. 먼저 조회에 참석하기 전 의례를 연습하는 장소가 달랐다. 명대에는 조선 사신이 朝天宮의 中門 안에서, 청대에는 鴻臚寺의 牌閣 앞에서 조회에 참석하는 의례를 연습했다. 이 때 조선 사신의 동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늦은 밤까지 연습을 거듭해야 했다.²⁹⁾

명대의 조회 의례에 참석한 사신은 午門 앞에서 명의 13省 관리들과 함께 반열을 이루어 대기했으며, 御路 위에서 五拜三叩頭를 거행하고, 右掖門으로 들어가 황제를 만났다. 황제를 만날 때 조선 사신은 어로 위에 꿇어앉았고, 홍려시 관원이 황제에게 사신을 소개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三叩頭를 했고, 황제가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다시 삼고두를 한 다음 우역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이후 조선 사신은 光祿寺로 가서 차와 술, 밥을 대접받았다.³⁰⁾

이에 비해 청대의 조회에 참석한 조선 사신은 청의 文武 관원들과 함께 서쪽 掖門을 통해 들어가 西班牙의 末席에 섰다. 조선 사신은 뜰에 있는 拜位에서 황제에게 三跪九叩頭를 하였고, 사신의 위치는 각국 사신의 윗자리였다. 다만 황제가 사신을 우대하려고 하면, 조선 사신은 황제가 있는 殿內로 들어가 大臣의 末席에서 茶 한 잔을 마실 수 있었다.³¹⁾

다음의 〈그림 1〉은 1790년(정조 14) 북경을 방문한 徐浩修가 황제의 예우를 받을 때 조선 사신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한편 중국 황제의 외교문서를 받는 의례는 조선 국왕이 서울 교외에 있는 慕華館으로 나가서 직접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국왕은 詔書를 맞이할 때 冕服을 입고, 勅書를 맞이할 때에는 翊善冠과 袞龍袍를 입었다. 중국 사신이 가져온 조서와 칙서는 黃屋龍亭에 안치되어 궁궐로 이동하였고, 용정이 이동할 때 그 앞에는 黃儀仗과 香亭이 배치되었다. 궁궐에 도착하면 국왕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들어오는 조서와 칙서를 맞이하였고, 중국 사신에게 조서와 칙서를 받을 때도 뜰 중앙에서 四拜한 후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받았다.

국왕이 詔書와 勅書를 받는 의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국왕이 조서를 받을 때에는 뜰의 중앙에 위치하지만 칙서를 받을 때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남쪽 가까이에서 받았다. 국왕의 위치가 변하면서 조서는 중

28) 『通文館志』 권3, 事大上, 「表咨文呈納」.

29) 『通文館志』 권3, 事大上, 「鴻臚寺演儀」.

30) 『通文館志』 권3, 事大上, 「朝參」.

31) 『大清會典事例』 권505, 禮部, 朝貢, 「朝儀」.

“恭遇萬壽聖節·元旦·冬至·朝賀, 及皇帝陞殿之日, ……如侍以優禮, 是日入班會集之韓滿大臣, 咸蟒袍補服, 按翼侍立。禮部堂官, 引貢使, 至丹墀行禮畢, 引由西階升, 入殿右門, 立右翼大臣之末。通官隨入, 少後立。皇帝降旨賜坐, 領侍衛內大臣·內大臣·入班會集之滿漢大臣, 及禮部堂官, 一叩頭, 序坐。貢使隨跪一叩頭坐。賜茶, 尙茶進皇帝茶, 衆跪叩。侍衛徧授大臣及貢使茶, 咸跪受一叩頭, 飲畢, 跪如初。皇帝降旨慰問, 禮部堂上承旨俱如前儀, 禮畢。禮部堂上, 引貢使出, 至朝房, 承旨賜貢使尙房飲食訖, 館卿率以退。翌日黎明, 午門外謝恩。鴻臚寺傳贊西班牙, 引貢使就丹墀西北面, 行三跪九叩頭禮如儀。”

閣 部 大 臣 親 王 · 貝 勒 · 貝 子		
(北)	帝	(南)
(蒙古 · 回部 · 安南) 諸王 · 貝勒 · 貝子 (各國 使臣) 朝鮮 · 安南 · 南掌 · 緬甸 · 生番(臺灣)		

〈그림 1〉 서호수가 서술한 조선 사신의 위치³²⁾

국 사신으로부터 여러 사람을 거쳐 국왕에게 전달되었지만, 칙서는 사신으로부터 바로 국왕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조선전기에는 조서를 받은 후 국왕이 三叩頭와 山呼를 했지만 칙서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국왕이 칙서를 받을 때에도 三叩頭와 山呼가 추가되어 의례가 강화되었다. 국왕이 황제에게 외교문서를 올리거나 황제의 외교문서를 받을 때에는 君臣 의례가 철저히 적용되었다.³³⁾

조선의 국왕과 일본의 관백이 외교문서를 교환할 때에는 서로 抗禮를 하였다.³⁴⁾ 江戸(東京)에 도착한 조선 사신은 궁성 안으로 들어가 관백에게 외교문서를 직접 전달하였다. 조선 사신은 9개의 문 가운데 7번째 문에서부터 걸어서 들어갔고, 조선 국왕의 國書는 8번째 문에서 龍亭에서 내려 일본 측 首堂上이 손으로 받들고 들어갔다. 이 국서는 사신이 관백을 마주한 상황에서 수당상에서 對馬島主와 執政의 손을 거쳐 관백에게 전달되었고, 조선 사신은 가져온 폐백을 진열한 앞에서 관백에게 四拜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국서를 전달하는 의례가 끝났다.³⁵⁾

조선에서 일본 관백의 국서를 접수하는 의례는 조선전기와 조선후기가 달랐다. 전기에는 일본 사신이 조선 국왕의 조회에 참석하여 외교문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때 일본 사신은 뜰의 서쪽에 있는 武班 자리에서 국왕에게 四拜를 올렸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꿇어앉은 상황에서 일본 국왕의 안부를 묻고 사신을 위로하는 국왕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후 일본 사신은 다시 뜰로 내려와 사배한 후 물러나는 것으로 의례는 끝났다.³⁶⁾ 조선 사신이 관백의 正堂 안으로 들어가 국왕의 국서를 전달했다면, 일본 사신은 국왕의 조회에 참석하여 관백의 국서를 전달했다.

조선후기가 되면 일본 사신은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금지되었고, 관백의 국서는 일본을 방문하여 국서를

32) 徐浩修, 『燕行紀』 권2, 7월 16일.

33) 詔書를 받는 의례는 『國朝五禮儀』 권3, 嘉禮, 「迎詔書儀」; 『春官通考』 권46, 嘉禮, 「迎詔書儀」. 勅書를 받는 의례는 『國朝五禮儀』 권3, 嘉禮, 「迎勅書儀」; 『春官通考』 권46, 嘉禮, 「迎勅書儀」 참조.

34) 1711년 통신사행의 國書 전달식에 대해서는 박화진·김병두, 『에도 공간 속의 통신사』, 한울, 2010, 133~155쪽.

35) 『通文館志』 권6, 交隣下, 「傳命儀」; 하우봉, 「조선시대의 통신사외교와 의례문제」, 『朝鮮時代史學報』 58, 2011, 84~85쪽.

36) 『國朝五禮儀』 권5, 賓禮, 「受隣國書幣儀」.

전달한 조선 사신에게 바로 내려졌다. 조선 국왕이 보낸 국서에 회답하는 형식의 국서였다. 일본 관백의 국서는 집정과 대마도주가 조선 사신의 숙소로 가져와서 전달하였고, 이후 양측 관리들은 동쪽과 서쪽에서 마주보고 茶禮를 거행했다.³⁷⁾ 조선 후기에 조선과 일본의 국서 교환은 조선 사신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조선 국왕과 일본 사신의 직접적인 접촉이 사라진 것은 임진왜란 이후 양국의 외교관계가 상대적으로 소원해졌음을 의미한다.

Ⅲ. 使臣의 接待 儀禮에 나타나는 특징

1. 朝鮮 사신의 접대 의례

조선 사신이 북경에 도착하면 중국 측에서 이들을 접대하는 의례가 있었다. 사신이 북경에 도착한 직후 거행하는 下馬宴, 사신에게 선물을 주는 賞賜, 사신이 북경을 출발할 때 거행하는 上馬宴, 사신이 북경을 출발함을 알리는 辭朝가 그것이다.

下馬宴은 중국의 예부상서가 조선 사신을 위해 개최하는 연회로, 명대와 청대에 차이가 있었다.³⁸⁾ 명대의 하마연은 사신의 숙소인 會同館에서 진행되었고, 황제에 대한 禮로 회동관의 서쪽 계단 위에 설치된 龍亭에 一跪三叩頭를 거행한 후 시작되었다. 예부상서가 북쪽, 정사가 동쪽, 서장관이 서쪽에 위치한 상황에서 조선 사신이 예부상서에게 再拜하고 揖禮를 하면 예부상서는 음례로 답하였다. 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음악이 연주되고 공연이 베풀어졌으며, 양측은 7잔의 술잔을 나누고 용정 앞에서 일궈삼고두를 하는 것으로 잔치가 끝났다. 청대의 하마연은 禮部에서 거행하였고, 황제에 대한 예로 예부의 月臺 위에서 황제의 궁궐을 바라보며 三跪九叩頭를 하였다. 연회장에서 조선 사신이 예부상서에게 一跪三叩頭를 하면 예부상서는 답으로 揖禮를 하였다. 청 예부의 郎中은 동쪽에 앉고 조선 사신은 서쪽에 앉은 상황에서 술잔을 돌렸고, 연회가 끝나면 다시 월대 위에서 삼궈구고두를 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를 보면 중국의 예부상서와 조선 사신은 君臣 의례를 거행하였다. 두 사람이 만날 때 예부상서는 북쪽에서 南面하고, 조선 사신이 상급자에게 올리는 예를 거행하면 예부상서가 음례를 답하는 것이 그러했다. 다만 황제에 대한 의례에서 명대에는 일궈삼고두이던 것이 청대에는 삼궈구고두로 늘어났고, 연회장에서 사신의 자리가 명대에는 동쪽에서 청대에는 서쪽으로 바뀌었다. 또한 명대에는 조선 사신이 7잔의 술을 받았지만 청대에는 駝酪茶 1잔과 술 3잔에 다시 1잔을 받았다. 하마연에서 조선 사신의 위상은 명대보다 청대에 더 격하되었다.

賞賜는 중국 황제가 조선의 사신에게 상을 내리는 것이다.³⁹⁾ 명대에는 사신이 朝參禮에 참석한 후 다시

37) 『通文館志』 권6, 交隣下, 「受回答儀」; 『增正交隣志』 권5, 「受回答儀」.

38) 『通文館志』 권3, 事大上, 「下馬宴」.

39) 『通文館志』 권3, 事大上, 「頒賞」.

황제의 조회에 참석하여 상을 받았다. 명 황제에게 직접 상을 받은 것은 아니고 조회에 참석하여 황제에게 인사한 후 主客司의 郎中을 통해 전달받는 방식이었다. 이때 조선의 정사는 주객사의 낭중과 대등한 抗禮를 하였지만, 上通事 이하는 상하의 예를 거행했다. 황제의 상을 받은 사신들은 이튿날 궁궐로 가서 상을 준 은혜에 감사하는 謝恩禮를 거행했다. 청대에는 조선 사신이 皇宮의 午門 밖에서 예부 관리가 참석한 가운데 通官을 통해 상을 받았다. 상을 받는 방식은 조선 국왕에게 회송하는 선물을 받은 다음 三使臣(正使, 副使, 書狀官), 大通官 3인, 押物官 24인, 從人 30명이 차례로 받았다. 선물을 받은 후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은례를 거행했다.⁴⁰⁾ 상사에서 명대와 청대를 비교하면 의례는 더 간소화되고 사신에 대한 예우는 더 격하되었다.

조선 사신이 북경을 출발할 때에는 上馬宴이 개최되었다. 사신이 북경에서 머무는 기간은 명대에는 40일로 한정되었지만 청대에는 정해지지 않았다. 1683년에 파견된 謝恩使는 북경에서 60일을 머물기도 하였다.⁴¹⁾ 상마연 의례에 관한 기록은 청대에만 나타난다. 상마연은 조선 사신이 머물던 館所에서 진행되었고, 의례 절차는 예부에서 거행된 상마연과 같았다. 다만 座次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하마연에서 북쪽에 있던 예부상서가 동쪽에 위치하고 예부 郎中은 그 뒤에 자리했다. 예부상서가 동쪽에 위치하여 上位이긴 했지만 예부 관리와 조선 사신이 동서에서 마주 봄으로써 대등한 위상이 되었다. 청대의 상마연은 조선 사신이 북경에 도착한 이후 가장 예우를 받는 자리가 되었다.

金昌業은 1713년(숙종 39) 2월 13일에 북경의 館所에서 거행된 상마연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예부시랑(禮部侍郎)이 오자 사신은 중문(中門) 밖에서 맞이하였다. (예부시랑은) 들어와 동벽(東壁)에 앉았고 예부의 낭관(郎官)들은 그 뒤에 앉았다. 사신은 서벽(西壁)에 앉고 군관(軍官)과 역관(譯官)은 사신의 뒤에 앉았다. 먼저 차 한 잔씩을 마신 다음에 찬(饌)을 올렸는데, 사람마다 각각 한 탁자를 차지했다. 과실 이외에는 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탁자를 물린 뒤에는 삶은 양고기 한 덩이가 들어오고, 술을 세 분배씩 돌렸다. 연회를 마칠 때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려 감사하는 예(禮)를 하고 끝이 났다.⁴²⁾

이를 보면 상마연을 주관한 관리는 예부상서가 아니라 예부시랑이었다.

辭朝는 조선 사신이 황제의 궁궐로 가서 하직 인사를 올리는 의례이다.⁴³⁾ 명대에는 鴻臚寺에 참석자 명단을 單子로 보고하고 다음날 궁궐로 가서 사조 의례를 거행하였다. 의례를 마치면 조선 사신은 光祿寺로 가서 차와 술, 음식을 먹었고, 예부로 가서 堂上官에게 拜禮를 했다. 그러나 청대에는 이러한 의례가 모두 면제되고 조선 上通事가 예부에 가서 回奏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상에서 조선 사신이 북경에서 접대 받는 의례를 보면, 의식의 절차는 청대가 간소화되었지만 사신의 위

40) 중국 황제의 賞에는 조선 국왕에게 주는 回送賜物과 사신들에게 주는 一行賜物이 있었다. 국왕에게 주는 회송사물은 조선의 上通事가 받아가지고 와서 承政院에 납부했다(『通文館志』 권3, 事大上, 「資回數目」; 『春官通考』 권46, 嘉禮, 「資回賜物數」).

41) 『通文館志』 권3, 事大上, 「留館日子」.

42) 金昌業, 『燕行日記』 권6, 2월 13일.

43) 『通文館志』 권3, 事大上, 「辭朝」.

상은 상대적으로 격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조선 사신이 일본에 도착하면 크게 세 차례의 연향이 있었다.⁴⁴⁾ 사신이 대마도에 도착했을 때의 下船宴, 江戸에 도착했을 때의 別宴, 대마도에 돌아와 부산으로 떠나기 전에 上船宴이 거행되었다. 세 가지 연향은 대마도주가 주관하며 대마도주의 집에서 거행되었다. 대마도주는 1633년부터 參勤交代制가 시행되면서 1년은 대마도에 살고 1년은 에도에 살았다. 따라서 대마도주의 집은 대마도와 에도에 있었고, 그의 妻子들은 에도에서 살았다.

대마도주가 주관하는 연회에서 조선 사신과 대마도주는 서로 揖禮를 하였고, 사신은 동쪽, 대마도주는 서쪽에 앉았다. 연회에서 모두 아홉 잔의 술잔을 돌렸고, 戲子가 나와 재주를 부리고 舞童이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 조선 사신은 대마도주와 향례를 하였지만 동쪽에 앉는 것으로 우대를 받았다.

1624년(인조 2)에 姜弘重이 경험한 대마도 하선연은 대마도주의 집에서 交椅에 앉아 진행되었다. 연회가 시작될 때 대마도주(義成)는 중앙 계단에 서서 일행을 맞이하였고, 堂 위에 올라 揖禮를 했다. 조선 사신은 동쪽에 앉고 주인은 서쪽에 앉았으며, 술이 반쯤 취했을 때 어린 戲子가 나와 풍악을 울리고 재주를 부렸다. 또 舞童이 열을 지어 나왔는데, 모두 비단옷을 입고, 얼굴에는 가면을 썼으며, 손에는 금부채를 쥐고 절조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강홍중은 이때의 잔치가 흥미를 돋울만하다고 했다.⁴⁵⁾

조선 사신이 대마도주의 인도를 따라 江戸로 이동하는 동안 현지의 藩主가 주관하는 연향이 있었다. 처음에는 赤間關, 大坂城, 江戸, 尾張, 駿河 등 5곳에서 연향을 베풀었고, 중간에 赤間關 연향을 牛窓으로 옮겼다. 사신이 돌아올 때에도 5곳에서 연향이 있었다. 그러나 1719년(숙종 45)부터 藩主가 주관하는 연향은 大坂城과 江戸 두 곳으로 줄어 들었다.⁴⁶⁾

일본에서 조선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關伯이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이다. 조선 사신이 관백을 만나 국서를 전달하면, 관백은 조선의 三使臣(正使, 副使, 從事官)에게 술을 한 잔씩 내리는 酒禮가 있었다. 관백이 주관하는 주례는 관백이 正堂의 3층에 앉은 상황에서 조선 사신이 次堂의 동쪽에 앉았다. 관백이 술 1잔을 마신 다음 정사에게 술을 권하면 정사가 2층으로 올라가 이를 받아 마시고 再拜하며, 부사, 종사관의 순서로 술을 마셨다. 관백이 주관하는 주례가 끝나면 사신은 자리를 옮겨 일본의 세 納言이 주관하는 연향에 참석했고, 술 석 잔을 돌리는 것으로 끝났다.⁴⁷⁾

1764년(영조 40)에 趙曦은 관백에게 국서를 전달한 후 酒禮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이때 조선의 사신들은 관백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시지 못했다. 英祖의 엄격한 禁酒令 때문이었다. 국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조엄은 그 절차를 의논하면서 관백의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했고, 관백의 술잔을 받지만 술을 따르지는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44) 『通文館志』 권6, 交隣下, 「彼地宴享」; 「中路問安」; 『增正交隣志』 권5, 「彼地宴享」; 「中路問安」.

45) 姜弘重, 『東槎錄』, 1624년 10월 10일(辛亥).

46) 『通文館志』 권6, 交隣下, 「彼地宴享」; 『增正交隣志』 권5, 「彼地宴享」.

47) 『通文館志』 권6, 交隣下, 「傳命儀」.

우리나라의 주금(酒禁)은 지극히 엄하므로 조선의 신하로서 감히 입에 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히 술잔을 들지도 못한다. 이는 의리에 관계된 것이니, 관백이 만약 술을 권하더라도 결코 받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대마도주는 불화한 일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차라리 잘 주선하여 애당초 갈등이 없게 하는 것만 못하다.⁴⁸⁾

앞서 보았듯이 조선 사신이 중국 황제의 조회에 참석했을 때에는 특별한 명령이 있어야 사신이 황제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茶를 마실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조선 사신이 關伯의 술잔을 직접 받았으므로, 상대적으로 대접이 극진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를 보면 조선 사신은 중국의 예부상서와 일본의 관백에 대해 君臣의 예를 거행하였다. 또 조선의 사신은 중국의 禮部 郎中이나 主客司 郎中과 抗禮를 했고, 일본의 納言이나 대마도주와도 항례를 했다. 이는 조선 국왕이 일본의 관백이나 중국의 예부상서와 항례를 하는 상대임을 의미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禮部 尙書 ⇄ 조선 사신(君臣禮) ⇄ 일본 關伯
 중국 禮部 郎中 ⇄ 조선 사신(抗禮) ⇄ 일본 納言
 중국 主客司 郎中 ⇄ 조선 사신(抗禮) ⇄ 일본 對馬島主

2. 外國 사신의 접대 의례

중국 사신이 파견되면 조선 정부는 이들을 맞이하는 僉使를 파견했다.⁴⁹⁾ 빈사의 명칭은 사신의 위상에 따라 달라졌다. 사신의 지위가 正卿이면 빈사를 遠接使라 했고, 사신이 差官이면 接伴使라 했다. 중국 사신이 돌아갈 때는 원접사가 伴送使로 바뀌었다.

중국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오면 원접사와 평안감사는 義州의 義順館까지 나가 맞이하였다. 처음에는 평안감사가 安州까지 나갔지만 1675년(숙종 1)부터 의주로 바뀌었다. 조선 정부에서는 사신이 통과하는 의주, 定州, 安州, 平壤, 黃州, 開城 등 6곳에 迎慰使를 파견하였다.

황제의 칙서가 도착하면 조선의 관리들은 칙서를 맞이하는 의례를 거행한 다음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見官禮를 거행했다.⁵⁰⁾ 조선 관리가 중국 사신을 만날 때에는 사신이 북쪽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관리들이 차례로 名帖을 드린 후 再拜하고 揖을 하였으며, 사신은 이에 읊례로 답하였다. 조선 정부에서 파견한 영위사가 국왕의 御帖을 전달하면 중국 사신은 그때에만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받았다.

의주에서 연향을 베풀 때 중국 사신은 북쪽, 원접사와 영위사는 서쪽에 앉았다. 영위사는 正使와 副使에게 연속해서 두 잔의 술을 올렸고, 정사와 부사는 그 답으로 영위사에게 한 잔 술을 주었다. 다음으로 원접사가

48) 趙曦, 『海槎日記』 권4, 甲申(1764) 2월 17일(己亥).

49) 『通文館志』 권4, 事天下, 「僉使差遣」.

50) 『通文館志』 권4, 事天下, 「鴨綠江迎勅 見官禮附」.

두 사신에게 두 잔의 술잔을 올린 후 답으로 한 잔의 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원접사는 영위사에게 한 잔의 술을 주었다. 이 날의 연향은 원접사와 영위사가 다시 두 사신에게 술잔을 올리는 것으로 끝났다. 중국 사신이 서울로 오는 동안 의주 이외에 정주, 안주, 평양, 황주, 개성, 弘濟院 등에서도 사신을 위한 연향이 있었다.

중국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면 下馬宴, 翌日宴, 仁政殿 초청연, 會禮宴, 別宴, 上馬宴, 餞宴 등 7차례의 연향이 진행되었다. 사신 접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迎接都監을 설치하여 연향을 미리 연습하기도 했다.⁵¹⁾ 1537년(중종 32)에 조선을 방문한 명나라 사신 龔用卿은 총 7차례의 연향에 참석했다. 6번은 국왕이 주관한 연향이었고, 1번은 왕세자가 주관하였다. 다음의 <표 4>는 龔用卿 일행의 서울 일정과 연향을 정리한 것이다.⁵²⁾

<표 4> 龔用卿 일행의 서울 일정과 연향

일	날짜	연회	연회 장소	참석자	비고
제1일	3. 10	下馬宴	太平館	國王, 陪臣	
제2일	3. 11	翌日宴	태평관	국왕	土産 기증
제3일	3. 12				成均館 謁聖, 한강 유람
제4일	3. 13		태평관	王世子	
제5일	3. 14	勤政殿 초청연	慶會樓	국왕, 王子	後苑 산보
제6일	3. 15	會禮宴	勤政殿	국왕	換茶禮 후 연회
제7일	3. 16	上馬宴	태평관	국왕, 議政, 判書, 承旨	望遠亭 유람
제8일	3. 17	餞別宴	慕華館	국왕, 왕자, 議政, 陪臣	

중국 사신을 위로하는 연향은 대부분 사신의 숙소인 太平館에서 이뤄졌다. 조선 국왕이 태평관으로 가서 연향을 열 때 중국 사신은 동쪽, 국왕은 서쪽에 앉았다. 중국 사신은 조선 국왕과 抗禮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았다.

조선 국왕이 사신에게 술잔을 올리는 酒禮는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⁵³⁾ 국왕이 正使에게 첫 번째 술잔을 주고, 정사가 술을 마시는 동안 국왕은 잔대를 들고 있었다. 이어서 정사가 국왕에게 술잔을 주고 국왕이 마시는 동안 정사가 잔대를 들었다. 다음으로 국왕은 副使에게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술잔을 주고받았다. 王世子는 중국 사신에게 두 번째 술잔을 올리고 나서 국왕에게 술잔을 올렸고, 다음으로 宗親이 중국 사신에게 세 번째 술잔을 올렸다. 이날은 총 7잔의 술잔을 돌렸다. 중국 사신을 위한 연향에는 王世子, 宗親, 議政府, 六曹가 주관하는 것도 있었다.⁵⁴⁾ 이를 보면 조선 국왕과 중국 사신은 抗禮를 했고, 중국 사신이 상대적으로

51) 『通文館志』 권4, 事大下, 「入京宴享儀」.

52) 김문식, 「明使 龔用卿이 경험한 外交儀禮」, 『朝鮮時代史學報』 73, 2015, 213~218쪽.

중국 사신이 서울의 成均館을 방문하여 謁聖禮를 거행하는 것은 명대에만 있었다.

53) 『國朝五禮儀』 권5, 賓禮, 「宴朝廷使儀」.

국왕보다 우위에 있었다.

조선에서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는 전기와 후기가 달랐다. 조선전기에는 일본에서 파견되는 사신의 종류가 많아 사신을 파견하는 주체에 따라 사신을 접대하는 방법이 달랐다. 여기서는 일본 국왕이 파견한 사신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⁵⁵⁾

일본 사신이 도착하면 조선 정부에서 3품 朝官인 宣慰使가 通事와 함께 내려가 사신을 맞이하였다. 일본 사신에게는 浦所(乃而浦, 釜山浦, 鹽浦)에서 3차례, 경상도에서 3차례, 충청도에서 1차례, 경기도에서 1차례 연회를 베풀었다. 서울에 도착한 일본 사신은 南部의 樂善坊에 위치한 東平館에 머물며, 禮賓寺에서 이들을 맞이했다. 일본 사신이 조선 국왕에게 肅拜하는 날과 拜辭하는 날에는 대궐 안에서 연회를 베풀고, 사신이 돌아갈 때에는 예조에서 연회를 베풀고 餞別宴을 내려주었다. 사신이 돌아가는 길의 연회는 올 때와 같았으며, 포소에서 餞別宴을 1차례 열었다.

조선 전기에 일본 사신이 조선 국왕에게 국서를 올리면, 국왕이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가 진행되었다.⁵⁶⁾ 일본 사신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남쪽에서 동쪽을 향해 앉은 채 국왕이 내리는 술잔을 받았다. 이 때 국왕이 사신에게 술을 주는 방식은 일본 關伯이 조선 사신에게 술을 주는 방식과 비슷했다. 다만 조선 사신은 관백을 마주하고 앉았지만, 일본 사신은 국왕을 마주보지 못하고 동쪽을 바라보는 점이 달랐다.

조선 국왕이 일본 사신을 대접할 때 연회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1399년(정종 1) 6월에 정종은 일본 사신을 만난 후 날이 저물자 軍器監에서 불꽃놀이를 벌여 구경하게 했다. 이를 관람한 일본 사신은 “이것은 人力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天神이 시켜서 그런 것이다.”라고 감탄하였다.⁵⁷⁾

조선의 예조판서가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도 있었다.⁵⁸⁾ 조선의 押宴官, 예조판서, 예조참의가 동쪽에 있고, 일본의 정사와 부사는 서쪽에 서서 抗禮를 했다. 연회가 시작되면 압연관이 정사에게 술잔을 주었고, 정사는 그 답으로 압연관에게 술잔을 주었다. 다음으로 압연관은 부사와 종사관에게 차례로 술잔을 주었고, 부사와 종사관은 압연관에게 술잔을 주었다. 그 다음에 압연관은 예조판서와 예조참판에게 술잔을 돌렸다. 이날 양측 관리들은 총 5잔의 술잔을 돌렸다.

조선 국왕이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와 조선 전기에 예조판서가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는 매우 유사했다. 다만 국왕이 주관하는 연회는 중국 사신에게 7잔의 술잔을 주었지만 예조판서가 주관하는 연회는 일본 사신에게 5잔의 술잔을 준 점이 달랐다. 조선 국왕과 중국 사신, 예조판서와 일본 사신은 서로 抗禮를 하면서 조선을 방문한 사신을 대접하였다.

조선후기에 파견된 일본 사신은 서울까지 오지 못했으므로 조선 국왕이나 예조에서 접대할 기회가 없었다.⁵⁹⁾ 일본 사신이 배에서 내리면 釜山の 客舍로 가서 조선 국왕을 상징하는 殿牌에 四拜를 올렸다. 조선 전

54) 『國朝五禮儀』 권5, 賓禮, 「王世子宴朝廷使儀」; 「宗親宴朝廷使儀」; 「議政府, 六曹宴同. 唯執事者, 以錄事爲之」.

55) 『通文館志』 권5, 交隣上, 「接待日本人舊定事例」.

56) 『國朝五禮儀』 권5, 賓禮, 「宴隣國使儀」.

57) 『定宗實錄』 권1, 定宗 1년 6월 庚子(1일).

58) 『國朝五禮儀』 권5, 賓禮, 「禮曹宴隣國使儀」.

59) 『通文館志』 권5, 交隣上, 「接待對馬島人新定事例」.

기에 일본 사신이 서울로 올라와 궁궐의 서쪽 뜰에서 국왕에게 四拜를 올렸듯이 부산 객사의 마당에서 국왕의 전패를 향해 사배를 올린 것이다. 이후 사신은 宴享廳으로 이동하여 東萊府使가 주관하는 茶禮에 참석하였다.⁶⁰⁾

동래부사가 주관하는 다례는 대마도주의 書契를 받은 후 거행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君臣의 예를 거행하였다.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는 북쪽에 앉고, 일본 사신이 남쪽에서 再拜하면 그 답으로 揖禮를 하였다. 그러나 1610년(광해 2) 이후 의례가 변하여 서로 抗禮를 하였다.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동쪽에 서고 일본 사신은 서쪽에 서서 함께 읍례한 후 자리에 앉았다.⁶¹⁾ 동래부사가 주관하는 다례에서는 총 5잔의 술잔을 돌렸다.

동래부사가 주관하는 다례 다음에는 연향이 있었다.⁶²⁾ 동래부사가 일본 사신에게 술 한 잔을 주면, 일본 사신이 동래부사에게 술잔을 주었다. 이후 동래부사가 都船主, 押物, 侍奉에게 한 잔씩 돌렸고, 처음부터 다시 한 잔씩 돌렸다. 다음으로 부산진 첨사가 동래부사와 같은 방식으로 술잔을 돌렸다. 이 연향에서는 총 9잔의 술잔을 돌렸다. 조선후기에 동래부사가 주관한 연향은 조선전기에 예조판서가 주관한 연회에 해당하였다.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는 전기와 후기가 비슷했지만 연회를 주관하는 관리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조선후기에는 조선 국왕이나 예조판서가 주관하는 연회가 없어지고 동래부사와 訓導, 別差가 주관하는 것만 남았다.⁶³⁾ 일본 사신은 모두 대마도주가 파견한 差倭였으므로 부득이한 일이었다. 德川 막부는 조선과의 교섭 업무를 대마도주에게 일임했고, 조선 정부는 그 위상에 맞게 의례를 조정하였다. 조선후기에도 조선과 일본의 교섭은 계속되었지만,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의례는 일본을 방문한 조선 사신만 거행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에 동아시아 삼국이 교환한 외교문서와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 보았다. 이하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외교의례의 특징을 정리한다.

첫째, 중국 황제와 조선 국왕은 철저히 君臣 관계에 있었으며, 事大 관계란 바로 군신 관계를 의미했다. 조선에서 중국으로 보낸 외교문서에는 국왕이 황제와 황후, 황태자에게 보내는 것이 있었다. 이 문서들은 조

“定約時(1609), 玄蘇等請上京如舊例, 不許. 天啓壬戌(1622), 玄昉又請上京, 不許. 崇禎己巳(1629), 倭酋因西鬱, 復遣玄昉來請上京, 口陳數款事, 破格姑許, 而仍令後不得爲例.”

이를 보면 1629년(인조 7) 대마도주가 파견한 玄昉이 서울을 방문한 이후 일본 사신은 서울까지 오지 못했다.

60) 『通文館志』 권5, 交隣上, 「倭使肅拜式」.

61) 『通文館志』 권5, 交隣上, 「茶禮儀」.

62) 『通文館志』 권5, 交隣上, 「宴享儀」.

63) 『通文館志』 권5, 交隣上, 「書奉盃式」.

訓導와 別差는 동래부사가 주관하는 다례에 참석한 하급관리이다. 訓導는 釜山浦에 배치된 倭學訓導 1인을 말하며, 別差는 司譯院에 소속된 倭學教誨나 譯科에 급제한 聰敏한 사람으로 동래에 파견된 관리를 말한다.

선에서 출발할 때부터 황제와 같은 대우를 받았고, 북경에 도착한 이후에는 禮部를 통해 황제에게 전달되었다. 중국 황제와 조선 국왕은 대등하게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이에 비해 조선 국왕이 황제의 문서를 받을 때에는 서울의 교외에서 맞이하였고, 궁궐에 도착하면 무릎을 꿇고 君臣의 예를 거행한 후 문서를 받았다.

조선 사신과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에서도 君臣 관계가 확연히 나타났다. 중국에서 조선 사신을 접대하는 관리는 예부상서였고, 예부상서와 조선 사신의 위상은 군신 관계였다. 조선 사신이 중국 황제의 술을 직접 받는 경우는 없었고, 황제가 사신을 예우할 때 황제가 있는 殿內로 들어가 중국 大臣들의 末席에서 茶를 한 잔 받는 것이 최고의 예우였다. 이에 비해 조선에서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에는 국왕과 사신이 同格이고, 그나마 上席에 해당하는 동쪽 자리를 사신에게 양보하였다. 중국 사신은 의주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 국왕의 御帖을 받을 때만 좌석에서 일어났고 그 외에는 항상 앉아 있었다.

둘째, 중국을 방문한 조선 사신의 지위는 명대보다 청대에 더 낮아졌다. 조선 사신을 위한 下馬宴을 보면 연회 장소가 사신의 숙소인 會同館에서 禮部로 바뀌고, 연회 전에 황제를 향해 올리는 예도 一跪三叩頭에서 三跪九叩頭로 강화되었다. 또한 연회 중에 조선 사신이 앉는 자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뀌었고, 사신이 받는 술잔은 7잔에서 술 4잔과 駝酪茶 1잔으로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사신이 황제의 賞을 받을 때 명대에는 황제의 조회에서 받았지만 청대에는 皇宮의 午門 앞에서 받았다. 명대에는 상을 받은 후 다시 궁궐로 가서 謝恩禮를 올렸지만 청대에는 상을 받은 자리에서 바로 사은례를 올렸으므로, 그 의례는 간소화되었다. 그렇지만 조선 사신이 받은 예우는 더 격하되었다.

셋째, 조선 국왕과 일본 관백은 철저히 抗禮를 하였고, 交隣 관계란 바로 대등한 관계를 의미했다. 조선 국왕과 일본 관백이 주고받은 외교문서는 國書 뿐이었다. 양국이 교환한 외교문서에 書契가 있었지만 이는 조선의 禮曹參判 이하 관리와 일본 막부의 老中과 대마도주 사이에 오간 문서에 불과했다. 사신이 國書를 전달할 때에는 국왕이나 관백을 직접 만나 전달했고, 이 때 국왕이나 관백에게는 君臣의 예를 거행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조선 사신이 국서를 전달한 후 일본 국서를 직접 받았으므로, 조선 국왕이 일본 사신을 만날 일은 없었다.

조선과 일본의 사신을 접대할 때에도 대등한 抗禮였다. 일본에서 조선 사신을 접대하는 관리는 대마도주였고, 조선 사신과 대마도주는 대등한 가운데 사신이 우대받았다. 조선 사신이 국서를 전달할 때에는 관백이 주는 술잔을 받았고, 幕府의 관리(納言)와 어울릴 때에는 抗禮를 하였다. 여기서 조선 사신에 대한 접대를 기준으로 할 때, 일본 關伯의 지위는 중국의 禮部尙書와 같았고, 일본의 納言은 중국의 禮部郎中에 해당했다. 조선에서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는 일본에서 조선 사신이 받았던 의례와 대동소이했다.

넷째, 조선전기와 후기에는 일본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가 확연히 달랐다. 조선전기에는 일본 관백이 파견한 사신이 조선 국왕을 만났지만, 조선후기에는 대마도주가 파견한 사신이 동래부사를 만났다. 이에 따라 사신을 접대하는 관리도 달라졌다. 조선전기에는 예조판서가 일본 사신과 항례를 했다면, 조선후기에는 동래부사와 일본 사신이 처음에는 君臣의 예를 하다가 抗禮로 바뀌었다. 일본 사신이 동래부사에게 항례를 한 것은 1610년부터였다.

조선시대의 외교의례를 보면 중국과 조선은 군신 관계였고, 조선과 일본은 대등한 관계였다. 조선 국왕은 중국의 황제에게 군신의 예를 거행하고 일본의 관백에 대해서는 항례를 하였으며, 그들의 신하에서도 위상의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나 외교의례에 반영되었다. 그런데 1864년 일본의 天황이 복권되면서 동아시아 삼국의 국가적 위상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이제 일본에는 황제에 해당하는 天황이 존재했고, 조선의 국왕은 천황에게 군신의 예를 갖추는 것을 요구받았다. 조선에서 중국 황제나 일본 천황과 대등한 抗禮를 하는 것은 大韓帝國의 황제가 등장한 이후에야 가능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國朝五禮儀』

『通文館志』

『增正交隣志』

『同文彙考』

『春官通考』

『大清會典』

『大清會典事例』

姜弘重, 『東槎錄』

金昌業, 『燕行日記』

趙巖, 『海槎日記』

徐浩修, 『燕行紀』

丁若鏞, 『事大考例』

구범진, 「조선의 건륭 칠순 진하특사와 『열하일기』」, 『인문논총』 70,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김경록, 「朝鮮初期 對明外交와 外交節次」, 『韓國史論』 4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0.

金暻綠, 「朝鮮後期 事大文書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5, 2005.

김경록, 「조선시대 事大文書의 생산과 전달체계」, 『韓國史研究』 134, 2006.

金暻綠, 「明代 公文制度와 行移體系」, 『明清史研究』 26, 2006.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김문식, 「英祖의 國王冊封에 나타나는 韓中 관계」, 『韓國實學研究』 23, 2012.

김문식, 「明使 龔用卿이 경험한 外交儀禮」, 『朝鮮時代史學報』 73, 2015.

김한규, 「전통시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질서」, 『역사비평』 2000년 봄호, 2000.

박화진·김병두, 『에도 공간 속의 통신사』, 한울, 2010.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景仁文化社, 2011.

하우봉, 「조선시대의 통신사외교와 의례문제」, 『朝鮮時代史學報』 58, 2011.

孫承喆, 『近世朝鮮의 韓日關係研究』, 국학자료원, 1999.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1970.

泉澄一, 「對馬島宗家文書の 分析 연구」, 『국사관논총』 7, 1989.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27일에 투고되어,
2015년 12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The Character of a Diplomatic Ritual Appeared in Joseon Dynasty

Kim, Moonsik*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national status of three East Asian nations by studying the distinct feature of Joseon Dynasty's diplomatic ritual. I consider the character appeared in the process of the three East Asian nations exchanging the diplomatic documents and the protocol of treating envoys. So I can find the distinct feature of Joseon Dynasty's diplomatic ritual as this.

A Chinese emperor and a king of Joseon we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r and the ruled exhaustively. The king should perform the ceremony of the ruled's when he sent a diplomatic document to a Chinese emperor. Treating envoys, the Chinese minister of the Office of Protocol and Joseon's envoy we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r and the ruled. But when a king of Joseon treated a Chinese envoy, the king and the envoy were on the same status.

The status of a Joseon envoy in China was more downgraded in the Ching Dynasty than in the Ming Dynasty. When a Chinese government official arranged a banquet, a Joseon envoy should go to the Office of Protocol and receive fewer drinking cups after performing harder ceremony to a Chinese emperor in the Ching Dynasty. Receiving a Chinese emperor's prize, the envoy received the prize on the front of the Imperial Palace's gate not in the Palace.

A king of Joseon and a Shogun were on the same status. They sent an envoys and exchanged diplomatic documents each other, their envoys performed the ceremony of the ruled's to the king or the Shogun. The protocols of treating Japanese envoy and Joseon's envoy were equal too. In Japan, a Joseon envoy and the Lord of Daemado and a Shogun's bureaucrat were on the same status. A Japanese envoy could be given a same reception in Joseon too.

During the former and the latter half of Joseon Dynasty, the protocols to treat a Japanese envoy were different. The Lord of Daemado sent an envoy and the envoy could meet an Dongnae Magistrate but he couldn't meet a king of Joseon during the latter half. During the former half of Joseon Dynasty, the Joseon's minister of the Office of Protocol and a Japanese envoy were on the same status, but during the latter half the status of an Dongnae Magistrate and

* Professor, Dept. of History, Dankook University

a Japanese envoy were equal.

As a emperor of Japan was reinstated in 1864, there happened a big change on the status of three East Asian nations. After the emperor of Korean Empire came on the scene in 1897, the two emperors could be on the same status.

[Key Words] diplomatic ritual, diplomatic document, king of Joseon, Chinese emperor, Shogun